

佛語의 述語動詞 否定素의 意味效果

김 공 대

佛語佛文學科

(1987. 9. 25 접수)

< 要 約 >

불어의 否定素에 대한 연구는 Damourette와 Pichon의 심리적 측면의 연구가 그 嚆矢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은 動詞에 前置되는 ne를 「不一致辭」로 동사에 后置되는 부정소를 「排除辭」라命名했다. 그들 理論에 의하면 동사에 의해 표현된 부정현상들은 不一致와 排除의 개념이 수렴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뒤따르는 Gaatone나 Togeby 등의 연구처럼 실제로 문집의 예문을 통한 통계 결과를 보면 Damourette와 Pichon의 理論은 객관성이 희박한 연구라고 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Gaatone나 Togeby의 부정소에 대한 統辭的 연구에 바탕을 두어 이 부정소들이 갖는 意味效果를 이미 Moignet를 中心한 Guillaume학파들의 精神機械論的 연구결과와 비교·검토해 보았다. 특히 Guillaume 학파들이 아직 다루지 않은 배제사의 긍정적 가치와 이것들이 二重否定文에 적용되는 경우의 부정소 됨됨이를 二元張力型 모델을 통해 검증해 보았다. 그 결과 부정소들의 意味序列에 횡축 (X)와 종축 (Y)인 XY 좌표 선상에 나타내짐으로서 Moignet보다 더 단순하면서 총체적으로 구조화된 모델(그림 6)을 얻게 되었다.

L'effet de sens des particules négatives aux prédicats en français

Kim, Kong-Dae

Dept. de la lang & litté françaises

(Received September 30, 1987)

<Résumé>

Nous pouvons dire que Damourette et Pichon ont étudié pour la première fois sur les particules négatives en français au point de vue psychologique. Ils ont nommé la particule 「ne」 antéposée d'un verbe comme 「discordantiel」 et les particules postposées d'un verbe comme 「forclusifs」. Selon leur théorie les phénomènes exprimés par les verbes ne seront niés que par la convergence de la notion de discordance et de celle de forclusion.

Mais après leur étude, Gaatone et Togeby ont étudié les propriétés syntaxiques des particules négatives par le corpus dont le résultat nous confirme que la théorie de Gaatone et de Togeby est plus objective que celle de Damourette et Pichon.

Alors, basant sur l'étude de celle-là nous avons comparé et examiné l'effet de sens des négatifs avec la psychomécanique de Moignet. Spécialement, nous avons vérifié la valeur positive des forclusifs et la négation double que les guillaumiens n'ont pas encore remarqués par la modèle de la tension binaire radicale. Grâce à cette étude nous pouvons obtenir la modèle(cf. figure 6) plus simple et plus économique de l'ensemble que celle de Moignet par laquelle l'ordination de sens des négatifs peut être figurée systématiquement sur les coordonnées.

I. 序 論

본 논문은 불어에서 문장부정법¹⁾이라고 할 수 있는 述語動詞를 완전하게 부정할 경우 동사를 중심으로 동사 앞에 놓이는 否定素 *ne*²⁾와 동사 뒤에 놓이는 排除辭³⁾ 및 이 무리에 속하는 부정소 *pas* 등의 의미효과를 관찰·분석하여 이들의 외연범위(*extensité*)를 二元張力型(*tension binaire radical*) 모델에서 포착해 序列化해 보려는데 있다.

De F. Brunot는 부정의 범위를 表現부정(*négation apparente*)과 실제부정(*négation réelle*)으로 나누면서⁴⁾ 후자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였는데 본 논문에서는 前者에 局限하기로 한다.

불어 부정문의 연구는 Damourette와 Pichon에 의한 언어심리학적 측면의 연구가 그 嚆矢라고 본다. 그들은 「동사에 의해 표현된 부정현상들은 不一致(*discordance*)와 排除(*forclusion*)의 개념이 수렴됨으로써 부정될 뿐」이라고 말한다.⁵⁾ 그들은 다음의 예문 (1)은 「Pierre가 오는 것과 내 마음 상태와의 불일치」를 나타내며 예문 (2)는 「내가 거기에 간 것에 대한 거부감」을 표시한다고 본다.

(1) Je crains que Pierre *ne* vienne.

(2) Je me repentis d'y être *jamais* venu.

그런데 사실(*réalité*)과 마음상태(*état d'âme*)와의 대립(*hostilité*)과 *jamais*에 의한 감정적

1) 文法研究 第一集, p. 42 참조.

2) Damourette et Pichon, *Des mots à la pensée*, § 115에서 *ne*를 「*discordantiel*」이라 부르고 있다.

3) *Ibid.*, § 116에서 *rien, jamais, aucun, personne, plus, guère* 등을 「*forclusifs*」로 부르고 있다.

4) *Langage*(1967), N°3, *De l'idée de négation à son expression*(Brunot), p. 58.

의미상으로 부정이 되는 예는 다음과 같다: *Allons donc!*; *Par exemple!*; *Vous me la baillez belle!*; *Vous m'en contez!*; *Voire, voire!*

5) Damourette et Pichon, *op. cit.*, § 117에서 「*Je n'en finirai jamais*」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그것을 마치는 것(*en finir*)」은 내가 인식하고 있는 실제시간(*réalité temporelle*)에 속하지 않으며 또한 현실에 불일치 할 것이다. 내가 「그것을 마칠 것」을 예상해 주는 어떤 정후도 느끼지 않는게 배제사이다. 더욱이 내가 「그것을 마치는 것」은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과 불일치될 것이다. 첫번째의 조건을 불완전하나마 속어체로 쓰일 수 있어 불완전한 형태나마 부정이라 할 수 있다. 잘 부정하기 위해 그 사실은 나의 인식 영역에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할 뿐 아니라 하나의 반증에 의해 이 영역에 있는 모든 사실들과 결줄 수 없는 것으로 내가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거부감(refus affectif)은 정말로 다른 심리적 태도를 나타내는 것일까? 한 개념에 대한 반감과 거절을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는 細分化된 심리를 묘사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

이에 반해 D. Gaatone나 K. Togeby는 corpus를 통한 통계를 바탕으로 보다 객관적인 접근을 시도함으로써 부정문의 통사적 특성을 밝히고 있다.

한편 우리의 관심사인 정신기계론(Psychomécanique) 학자들은 Moignet를 중심으로 부정소의 의미효과를 정신적 움직임의 차원에서 그 구조체계를 밝혀 보았다. 그러나 아직도 부정소 ne와 허사 ne의 비교, 부정으로서의 배제사의 긍정적 가치를 갖는 경우의 배제사, 二重否定에서의 부정소들이 incidence-mécanisme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 뚜렷하지 않다.

이런 의미에서 아직도 미흡하다고 여겨지는 부정소들의 comportements syntaxiques 및 의미효과를 좀 더 구체적이고 총괄적인 유기적 관계에서 밝혀보고자 comportement syntaxique를 추출해 비교·분석해 보고 그 의미효과도 G. Guillaume가 최고도의 이해(de haute et puissante compréhension)라고 지적한 二元張力型 모델의 test를 통해 되도록이면 완벽한 언어됨이(être)를 실제로 검증해 보기로 한다.

이 논문에서의 예문은 다음 서적을 참고하였음을 밝히고자 한다.

Damourette et Pichon : Essai de Grammaire de la Langue Française

Grevisse : Le Bon Usage

Togeby : Grammaire Française

II-1. 부정소 ne

부정소 ne는 항상 술어동사 앞에 위치한다. 다만 不定法 構文 앞에서는 ne pas의 형태로 나타나며(예 : pour ne pas le voir), 현대언어에서는 복합된 접속사 pour ne pas que를 쓰기도 하나 순수언어학자들은 이를 비판적인 눈으로 본다.

다음 예문을 보면 ne가 과거에는 현재보다 훨씬 폭넓게 부정용법으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Mais ne l'ferez par le men loement

(4) Ostez, fait-il; ne voil boivre ceste puur

(5) Il n'est pas possible que la mort de l'Empereur ne fasse quelque effet dans l'esprit des Princes et Républiques d'Allemagne.

이러한 현상은 근대작가들의 작품에서도 산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6) Pour moi qui l'avais connu au seuil de la vie, il était mon camarade, un adolescent dont je mesurais la jeunesse par celle que n' ayant cru vivre depuis ce moment-là je me donnais inconsciemment à moi-même.

(7) Comme c'est triste que la société ne soit un perpétuel bal blanc!

한편 현대작가들 중에는 연결된 요소 직후에 부정문을 마치기를 즐기고 있는 바 不定法을 생략했거나 단순한 간섭이 있었음을 표시하고자 함이다.

(8) Monsieur, exprimez-vous au lieu de ne pas!

(9) Oh, Malou, a dit mon mari, tu *ne*. Je n'ai pas entendu la fin de sa phrase, j'étais passée dans la salle de bains.

ne 단독으로 부정이 될 수 있는 경우는 위의 (3) ~ (5) 에서 본 바와 같이 文學的 用法으로서 古風이라고 말할 수는 없으나 기원은 古語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 이 경우의 *ne*를 「*ne ~ pas*」로 대체하여 사용하는 것이 흔히 통용되는 방법이지만, *ne*가 *pas*를 전혀 受容하지 않는 構文도 있으니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열 가지 경우이다.

첫째, 無冠詞 形態로 다음과 같은 成句를 이루는 경우이다.

(10) N'avoir de cesse: A la maison, je n'avais de cesse que je ne jouasse à mon tour ces tragédies solennelles.

(11) N'avoir cure: De cela Comynes n'a cure.

(12) N' avoir garde: Il n'eut garde de protester.

그 外 *n'avoir crainte*, *ne prendre garde* 등이 있다.

둘째, 비인칭용법 *il est*나 *il y a*가 관계사가 뒤따르며 그 선행사는 무관사로 된 실사(substantif)의 경우이다.

(13) Puisqu'il n'est bulle, bref, rescrit ou décrétale qui ait seulement effleuré le problème.

(14) Il n'y avait, en la ville, femme ou fille sur laquelle il n'osât porter le regard.

셋째, *importe* 다음에 의문사가 뒤따르는 경우이다.

(15) Je crois dans les choses possibles de le rencontrer encore, de rencontrer n'importe qui, n'importe quand.

넷째, *on ne peut plus*(moins)와 같은 부사절 속에서이다.

(16) Je suis on ne peut plus sérieux, ma chère!

다섯째, 보어가 없는 다음과 같은 동사구에서이다.

(17) N'en déplaie, A Dieu ne plaie: A Dieu ne plaie que je vous déplaie M. le baron.

(18) N' empêche: N'empêche qu'il a gagné.

(19) Il n'importe: Et maintenant il ne m'importe.

(20) Qu'à cela ne tienne: Qu'à cela ne tienne, chère Madame! Nous repassons demain dans la matinée.

여섯째,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종류의 종속절에서다.

A) 문학적 형식어인 *n'était*와 *n'eût été*가 「-이 없(었)다면」의 뜻으로 조건절에 쓰인 경우.

(21) N'était mon respect pour le professeur, j'en douterais sérieusement.

(22) N'eût été l'angoisse qui me torturait, je me serais amusé.

B) 부정에 뒤따른 조동사 절에서 「que~ne」가 「~없이(sans que)」의 뜻으로 쓰인 경우이다.

(23) *En Inde, il ne se passa pour ainsi dire pas de semaine que les problèmes linguistiques ne soulèvent des émeutes.*

(24) *Je ne vous lâcherai pas que vous ne me l'ayez répété mot pour mot.*

C) jusqu'à가 「~까지도(même)」의 의미로 쓰인 *il n'est pas jusqu'à~qui~ne*와 같은 강조 구문의 경우다.

(25) *Il n'est pas jusqu'aux enfants qui ne comprennent cela.*

일곱째, 웅변적인 질문(questions oratoires)의 경우로서 문학어에 쓰여 감탄구문이 된다. 그러나 일반 통용어로서는 pas를 넣는다.

A) 부분적 질문

(26) *Qui ne se souvient de sa propre histoire?*

(27) *Combien de fois n'avait-elle entendu ce nom: Sarah.*

B) Que가 「왜(pourquoi)」의 뜻인 경우

(28) *Que ne se fait-il, si le dialogue intérieur existe vraiment, que ne nous communique-t-il son savoir?*

C) 총체적인 의문

(29) *N'existe-t-il un homme que cet incendie attirerait?*

D) 질문이 주어의 속사인 quel에 의해 이끌어질 경우 pas는 추가된다.

(30) *Déarrassé de toute cette niaise littérature, invention du XIX^e siècle, quel n'eut pas été son charme?*

여덟째, 다음과 같은 조건절로서 문학어에 쓰인 경우이다. 그러나 pas의 추가는 응고된 것(figées) 이외에는 가능하다.

A) 반과거에서

(31) *Je ne me permettrais pas de vous la recommander si je n'étais sûre.*

(32) *Si je ne craignais de faire une plaisanterie, je dirais que c'est pousser loin l'art d'accommoder les restes.*

B) 현재 시제에서 「~이 않는 한, ~없이는(à moins que)」의 의미로 쓰인 경우

(33) *Je ne suis rien, si je ne suis tout.*

(34) *Qui l'aimera si ce n'est moi ?*

C) 응고되어 버린 표현 : *si je ne me trompe, si je ne m'abuse, si ce n'est.*

(35) *Si je ne me trompe, elle était picarde.*

(36) *Ladite fondation aura bientôt dix ans de vie, si je ne m'abuse.*

(37) *Et qui donc, si ce n'est un enfant, put avoir un jour l'idée de……*

아홉째, pouvoir, savoir가 ne 단독으로 결합되어 문학어로 쓰인 경우이다. pas를 추가하는 것이 일반적 현상이다. 특히 통용어(예문 39참조)에서 je ne puis pas는 절대적 불가능을 je ne puis는 당황, 난처함, 불편함을 나타낸다.

A) 통용어(langue courante)

- (38) Je ne pouvais pas me faire à l'idée qu'il l'eût vécue de cette façon-là.
- (39) Je ne puis pas lui faire la réponse d'un sourire.
- (40) On ne savait pas quoi faire.

B) 문학어(langue littéraire)

- (41) C'est écrit sur le journal, c'est clair, vous ne pouvez le nier.
- (42) Je n'ai pu m'empêcher de penser que tu t'y prenais un peu tôt.
- (43) Je ne sais pourquoi Martin avait mis la table dans sa chambre.
- (44) Un théâtre dont la vocation n'est pas de majorer le prix des places ne saurait se suffire à lui-même.
- (45) Combien de temps resterai-je à genoux? Je ne sais.

일째, 무기력으로 인한 타성(inertie)으로 부터 꺾일(rupture)을 나타내는 oser, cesser, bouger⁶⁾ 동사 앞의 경우로 pas를 추가하는 경우보다 그 타성의 지속도가 더욱 크다.

- (46) Louis n'ose lui parler. cf. Louis n'ose pas lui parler.
- (47) Jacques ne cessait de m'interrompre.
- (48) Il lui semble rien ne bouge.

이상과 같이 살펴본 단독의 ne는 동기는 분명하지 않지만 특이한 언어감정에서 발생하여 부정을 완화(modérer)하고 있다. 또한 자연적인 것으로 여겨졌던 pas가 부차적인 것이었으며 일반통용어와는 별개의 문학적 효과를 내고자 작가들에 의해 의식적으로 pas가 제거되었다고 할 수 있다.

II-2. 허사 ne

허사(explétif)로서의 ne는 앞서 다룬 부정으로서의 ne와 같이 文學語에 쓰인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언어사용상 잉여적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런데 Damourette와 Pichon은 이 허사 ne를 「discordantiel」이라命名하면서 「한 사실과 마음상태의 대립」에서 발생하여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고 본다.⁷⁾

- (1) 주절과 종절의 선후교환(décalage)과 不充分性(inadéquation)을 표시한다.
- (2) 겹침에 대해 靜的인 성격(記錄하는 편)이다.
- (3) 두 사실이 다음과 같이 대립되는 종속절의 용법이다.

| | |
|--------------|----------------------------|
| 비동등 비교급 구문 | 주어의 양절과 비교의 대상이 되는 것과의 불일치 |
| 두려움(crainte) | 주어의 의지와 고려되는 가능성과의 불일치 |

6) Ibid., § 2235 와 K. Togeby(1984) § 1857 참조.

7) Langage. 1967 N°3 pp. 61~62와 Damourette et Pichon § 115, § 2194에서 § 2239까지 참조.

| | |
|----------------|--------------------|
| 시간 (avant que) | 前事實과 後事實과의 시간적 불일치 |
| 방해 (empêcher) | 現實과 理想사이의 불일치 |

한편, D. Gaatone는 불일치가 ne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부정사가 아닌 ne가 어떤 경계점 (seuil)을 넘어서야만 나타나기 때문에 매우 可變的(variable)이고 주관적이며 불확실한 것 (aléatoire)이어서 흔히 거의 예견되지 아니하여 (peu prévisible) 잘 파악할 수 없는 (peu saisissable)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그는 ne의 생략은 口語에서 매우 다양하고, 流動的(mouvante)인데⁹⁾ 文語에서의 ne 기능이 구어에서 보다 훨씬 복잡하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본다. M. Cohen도 「회화에서는 ne 사용이 드물며 잘 정돈된 논문에서도 더 많지는 않다」는 견해를 표명하고 있다.

K. Togeby는 허사 ne가 나타나는 구문은 시제가 線條的인 아니라, 點括的(ponctuel)이며 二重的인 무엇인가를 지시한다고 하면서, 곧 긍정극(pôle positif)과 부정극(pôle négatif) 사이의 동요(oscillation)⁹⁾라고 보았는데, 이 개념은 Damourette와 Pichon의 불일치 (discordance)의 개념과 흡사한 데가 있다. 그런데 Togeby가 이 동요(oscillation)의 개념과 Nordahl처럼 corpus를 통해 허사 ne의 실체를 해결하려는 태도를 다 용인하고 있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 담겨있다고 보여진다. 왜냐하면 많은 지식인들이 사용하는 언어 용법이 그 만큼 더 객관성을 드러내주는 언어 사용법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R. L. Wagner도 Damourette와 Pichon의 허약한 가정(hypothèse)을 거부하면서¹⁰⁾ 허사 ne는 더 이상 동사의 양태나 시간적 가치에 묶여 있는게 아니라 종속관계의 긴밀성에 의해 음성학과 관계를 맺어 우아한 규범을 보일 수 있다고 말한다.

이번에는 Gaatone이 corpus를 통해 조사한 허사 ne의 사용은 다음 표와 같다.

| 사용된 구문 | ne를 사용한 경우 | ne를 생략한 경우 |
|---------------|------------|------------|
| 두려움 (crainte) | 112 | 76 |
| 의심 (doute) | 16 | 29 |
| 비동등비교급 긍정문 | 248 | |
| 비동등비교급 부정문 | 6 | |

여기에 추가해 H. Nordahl이 조사한 허사 ne의 빈도를 보면 다음과 같다.¹¹⁾

| | |
|---------------------------|-----|
| ① 비동등비교급 구문 | 97% |
| à moins que의 구문 | 94% |
| ② 금지 (empêchement)의 동사 | 87% |
| 두려움 (crainte)의 동사 | 85% |
| ③ avant que | 46% |
| ④ 부정적 의심 (doute) 동사+subj | 48% |
| 부정적 부정 (négation) 동사+subj | 22% |
| ⑤ sans que | 3% |

9) K. Togeby(1984), § 1868을 참조하면 비동등비교급은 존재하는 어떤 것과 존재하지 않는 어떤 것 사이의 동요로서 금지의 동사는 실천의지와 준비 중인 부정사이의 동요이고 걱정의 동사는 기대와 거절사이의 동요이고, 의심과 부정의 동사는 두 부정사이의 균형이 문제되는 것으로 본다.

10) R. L. Wagner, La Grammaire française, pp. 62~64 참조.

11) op. cit. § 1868.

이상의 두 표의 결과를 볼 때 허사 ne의 사용 빈도수는 거의 일치하고 있는데 이는 Wagner의 주장을 더욱 신빙성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하고 있다.

그러면 Gaatone나 Nordahl이 조사한 통계자료에 따라 허사 ne가 어떤 양태로 나타나는지 검토해 보자.

A) 비동등비교급의 부정에서

- (49) Ils ne sont pas dangereux, ceux-là, ils ne demandent plus qu'ils ne donnent.
- (50) Thérèse, qui n'aime pas moins son mari que lui ne l'aime.
- (51) Vous n'êtes pas convaincus que je ne le suis.

B) à moins que의 구문에서

- (52) Vous devez avoir votre médecin, je ne peux pas me substituer à moins qu'il ne me fasse appeler en consultation.
- (53) Les attaques aériennes à moins qu'elles ne détruisent tout, renforcent la volonté des gens de continuer le débat.

C) 금지 (empêcher)의 구문에서

- (54) Mais je veux empêcher qu'on ne tue notre Messie.
- (55) Il y a, dans le tour de cette Phrase, quelque chose qui me gêne et empêche qu'elle ne soit à mes yeux tout à fait admirable.

D) 두려움 (craindre)의 구문에서

- (56) De son côté, le curé craignait qu'une parole maladroite ne perdît tout.
- (57) Je craignais qu'elle ne l'accueillît mal et se récriât d'horreur.

(종속절이 등위가 되어 ne 허사는 첫번째 절에만 놓였음)

E) avant que의 구문에서 ~ 현재시제의 경우에는 ne를 사용하는 경우가 절반 정도이며 접속법 반과거 및 대과거의 경우는 ne 사용이 절반이상이고, 복합과거에서는 허사 ne의 생략이 압도적으로 우세하다.

- (58) La charge a pu être neutralisée avant qu'elle ne saute.
- (59) Ainsi, il a sélectionné Emmanuel Krivine, bien avant que la critique parisienne ne le découvre.
- (60) Il demandait à voir Daniel avant que celui-ci ne partit pour le lycée.
- (61) Ces pierres ont été trouvées moins d'une heure avant que la photo ait été prise.

F) 부정적 의심 (le doute nié)의 구문에서

- (62) Je ne doute pas que les enfants de ma voisine ne soient insupportables.
- (63) Nul doute que le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ne connaisse ces statistiques

G) ne pas nier, ne pas contester 등의 부정적 부정

- (64) On ne saurait nier, en effet, que des passions égoïstes……n'aient poussé beaucoup de

nobles et de capitaines à se joindre aux protestants pour les entrainer.

(65) Et je ne conteste pas non plus que son action n'ait été communément toute autre que bienfaisan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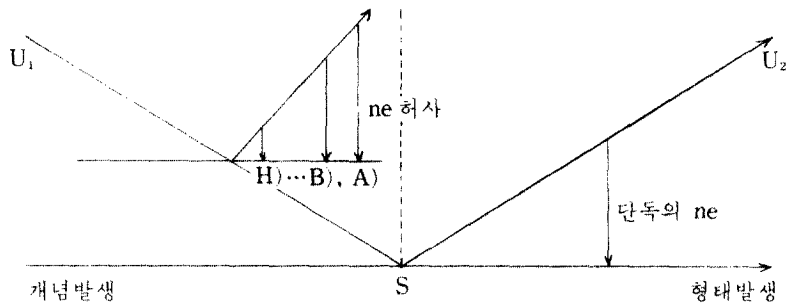
H) sans que의 구문에서 ~19세기 들어 사용된 구문이어서 아직은 사용빈도가 가장 낮다.

(66) Il ne passait guère d'après-midi sans qu'il ne reprît ces deux livres qu'il ouvrait sur la table.

(67) Le 6 avril passe, sans que rien n'arrive.

위에서 검토해 본 ne 단독(ne disjointe)의 부정소와 허사로서의 ne를 비교하면 前者는 後者에 비해 否定性이 완전히 드러나 거의 대부분의 경우 pas를 추가하여 완전한 부정(négation pleine)이 되어 통용어로 쓰인다. 반면에 허사 ne는 구문의 종류에 따라 二重的인 무엇, 즉 oscillation 내지 discordance를 다소 내포하므로, discours로서의 형태발생이 되지 못하고 개념발생의 차원에 머무른다고 할 수 있다. 허사로서의 ne는 생략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더욱 이 사실을 강하게 입증한다.

앞에서 나온 A)부터 H)까지의 허사로서의 ne와 ne 단독과의 의미효과를 二元張力型 모델에 포착해 나타내보면 다음 그림 (1) 과 같다.



<그림 1>

이 경우 허사 ne의 구문은 내적차감(subduction exotérique)되어 그 개념발생 정도는 A)가 가장 커서 tension ouverte에 치우치며 정반대로 H)같은 sans que의 구문은 개념발생 정도가 가장 약해서 tension fermante 쪽에 나타나 있다.

Moignet(1981, p. 206)가 보여주는 모델에 비해 각 구문에 따른 허사 ne의 내적차감 정도와 단독의 ne와의 비교가 훨씬 정교하게 다듬어졌다고 볼 수 있다.

II-3. 배제사의 통사적 형태와 의미효과

동사뒤에 놓여 부정을 만드는 배제사는 일상 통용어에서 ne없이 단독으로 쓰일 수 있다. 대개 속된 표현(parlure vulgaire)이나 어린이들의 말투이며 교양인들도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아이들에게 금할 행동을 가르치는 경우와 심리적 긴장을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낮추려는 데 쓰이고 있다.¹²⁾

12) Ibid. § 2265.

pas: T'entends pas?

J'ai fumé la pipe de mon père, la plus vieille, un soir, j'ai pas tremblé.

personne: Personne pipa. Personne répond.

rien: L'argent, pour eux, c'est rien.

ni~ni~: Ça lui fait ni chaud ni froid.

aucun: Ça me fait aucun effet.

jamais: J'ai jamais été puni, sergent……je ne le ferai plus.

plus: On se déshabille plus depuis longtemps.

그런데 배제사가 다음 (a~c)구문의 경우 ne 없이 단독으로 쓰여 긍정적 가치의 의미효과를 지닌 채 일반화(généralisation)를 나타낸다, 다만 순수부정이라고 할 수 있는 pas와 point 은 그렇지 않다.

a) 주절이 부정(실제부정 포함)구문에 의존할 경우 단독 사용의 빈도가 가장 높다.

(71) Je ne crois pas que *personne* ait peur.

(72) Elle ne fut même plus sûre d'avoir *rien* entendu.

(73) Une pièce dont il ne me semble pas qu'on se soit *guère* occupé.

(74) Cette grandeur, cette générosité, je désespérais de les atteindre *jamais*.

b) 조건절의 경우 *jamais*가 두드러지게 사용된다.

(75) Si *jamais* vous aviez autre chose à me dire, je suis là.

(76) Comme si on allait manquer de *rien* là-bas!

c) 의문문 다음에 놓이는 경우도 *jamais*가 두드러진다.

(77) Mais peut-on obtenir sans *rien* risquer?

(78) Croyez-vous que le pouvoir ait *aucun* charme pour moi?

(79) Est-ce que je t'ai *jamais* battu?

d) 의심 또는 어떤 다른 감정의 표현 다음에서

(80) Mais je doute qu'on y atteigne *jamais*.

(81) Il est même miraculeux qu'il ait *jamais* trouvé.

e) 假比較級 句文 「trop~pour」 다음에서

(82) Il est trop tard pour rencontrer *personne*.

(83) Il était trop content de lui pour s'apercevoir de rien.

f) 「avant」에 의존하는 절에서

(84) Partez avant que *personne* vous voie.

(85) Avant qu'ils puissent *rien* distinguer d'autre dans la pénombre du magasin.

(86) Il ouvrait la bouche, comme si un gros rire allait en jaillir, puis la fermait avant d'avoir produit *aucun* son.

(87) Je compte accréditer le bruit de la conversion avant même que votre soeur y ait *jamais* pensé.

g) 비교급 또는 최상급 구문에서

(88) Elle s'étoit trouvée impuissante et ces deux seigneurs, peu à peu revenus eux et leurs femmes mieux et plus familièrement que *jamais*, auprès du roi.

(89) La France offre au monde le plus magnifique exemple de forces morales et de vertus civiques qu'un peuple ait *jamais donné*

이와같이 일상통용어로서 *ne*없이 배제사 단독으로 쓰인 경우는 한 마디로 자유분방한 표현법(un tour plus hardi)으로서 Damourette와 Pichon이 말한 배제사의 네 가지 특징¹³⁾ 중에 하나인 「역동적(dynamique)」인 면을 잘 드러내준다고 본다.

더구나 L. Fortolis가 Le Matin(1938. 9. 8)紙에 쓴 다음 예문 가운데에는 *ne*가 있는 경우의 *pas*와 없는 경우의 *pas*가 연속되는 가운데 감정의 점증(progrès)이 이루어짐을 파악해 볼 수 있는 것도 *pas* 단독으로 쓰인 경우가 *ne*를 동반하는 경우보다 더 역동적임을 드러내는 또 하나의 증거라고 할 수 있다.

……Si vous n'aviez pas craint de vous adresser à moi, j'aurais pu vous trouver un emploi plus assorti à votre rang et sans doute mieux rétribué Pourquoi *ne m'avoir pas donné* signe de vie dès votre arrivée à Paris?

-Je n'osais vous importuner, madame.

-Vous *avais-je pas* prouvé, en ne cessant point de correspondre avec vous, que je ne demandais qu'à vous rendre service?

이번에는 *ne*와 더불어 평범한 부정형(négation banale)이 된 배제사들의 comportement syntactique를 살펴보면, 대개 다음과 같이 文學語로서의 기능을 담당함을 볼 수 있다.

A) point : 오래된 *pas*의 변이형으로 전통문법에서 말하는 강조형은 아니다. 文學的 用法 내지 지엽적인 사용이다.

(90) Des jeunes gens qui seront un jour des maris. -Je n'en cherche point.

(91) La v^e République a-t-elle engagé la lutte contre les spectateurs? -Non point: elle les couvre et les couve.

그러나 *pas*와는 다른 行態를 갖는 다음과 같은 경우도 있다.

(92) Point n'est utile de revenir ici sur l'étude linguistique de l'adverbe.

(93) Etions-nous paresseux? -Point.

B) guère : 文學的 用法이다.

(94) Le nom d'Alain ne me disait guère.

(95) L'homme disparu, il reste l'oeuvre, et souvent. Ce n'est guère.

(96) Vous ne lisiez pas les journaux de l'époque? -Guère, j'avais 12ans.

C) jamais : 배제사 중에서 *ne*없이 단독으로 쓰이는 빈도가 가장 크다.

(97) Nous n'en parlions jamais.

13) Langage, 1967, N°3, pp. 61~62.

(98) Dans ces heures de vérité, c'est le moment où jamais de ne pas se soucier d'être orthodoxe ou hérétique.

(99) Bien, vous n'en parlez pas, n'est-ce pas? -Jamais!

D) plus : 문학어에서는 ne 단독으로 부정기능을 담당하므로 ne~plus는 ne~pas plus와 같다.

(100) Je ne sais plus si j'aime Lucette ou pa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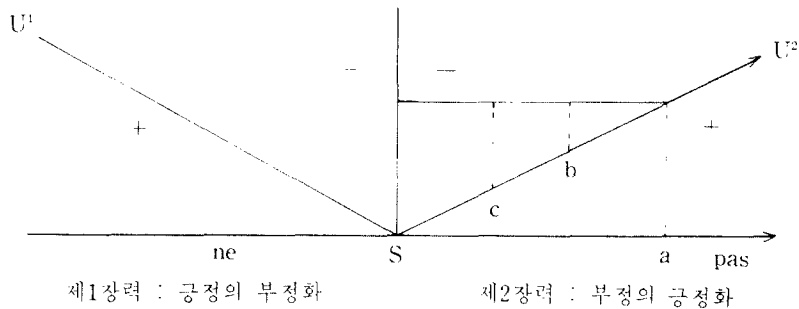
(101) Puisque l'étranger la saluait chaque jour sans même l'apercevoir, ne serait-il plus convenable, le lendemain, de pousser les volets et rendre le salut?

E) rien : 특이한 부정적인 힘을 지닌 채 문학어에서 조차 단독으로 부정개념을 나타낸다.

(102) Cela représente rien qu'en France plusieurs millions de femmes.

(103) Comptez-vous pour rien d'avoir été l'écrivain que vous êt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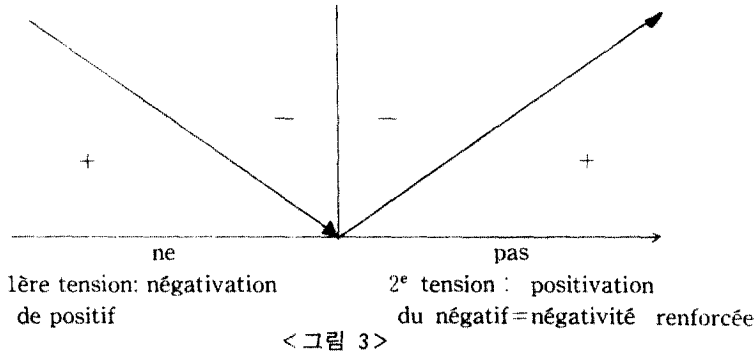
以上에서 pas 를 中心한 배제사들의 統詞의 行態와 특징을 검토해 보았다. 이제 각 배제사들의 의미효과에 따른 序列化를 二元張力型 모델에 포착해 본다면 다음 그림 2와 같다.



<그림 2>

그림 2를 보면 긍정적 가치를 지닌채 쓰인 배제사는 형태는 부정이나 의미효과상 긍정이므로 부정의 긍정화를 나타내는 제2장력에 나타나며 보편성(universalité : U_2)이 최대화 된 상태이다. 한편 ne 없이 배제사 단독으로 쓰인 경우는 한정된 일부 계층의 사용 언어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 특수한 상황에서 사용되어지므로 부정 경계선(seuil de négativité)을 넘어서서 보편성(universalité)보다는 특수성(singularité : S)을 더 띤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ne와 더불어 쓰인 배제사의 경우 문학어에 주로 쓰이며 완전부정으로서 ne 없이 쓰인 경우보다 훨씬 더 보편성을 드러내기 때문에 위의 그림에서 S(singularité)보다는 U_2 (universalité)에 더욱 가깝다.

Moignet(1981)가 그린 다음 그림(3) 보다 그림 (2) 가 훨씬 細分化된 精巧한 모델이 되고 있음을 비교해 볼 수 있다.



II-4. 唯一辭(uniceptif)

ne를 支柱로 하고 que를 매개점으로 하여 유도되는 唯一辭는 항상 배제적 분위기에서 출발한다.¹⁴⁾ 배제의 유일한 예외로서 결국 주된 사실에 대하여 再有効화된 요소임을 소개한다. 즉 ne에 의해 표시된 부정으로부터 벗어나는 단어 앞에 제한(restriction)을 나타내는 que를 놓는다.¹⁵⁾

이것의 통사적 범주는 實辭的, 形容辭的 그리고 副辭的인 가치를 지녀 용이하게 재유효화 하는 편임을 다음 例에서 알 수 있다.

A) 실사적 보어로서의 유일사

(104) 직접보어: On ne voit que sa tête violette et soufflée.

(105) 속사: Yver, vous n'êtes qu'un villain, / Esté est plaisant et gentil.

(106) 주어와 부분적 동일성을 지니는 보어:

D'mandez le petit piano, / vous verrez comm' c'est beau, / Ça ne cout' que deux sous, / Ç a n'est pas cher du tout.

(107) 비인칭과 연결되는 경우

Il n'est que de trouver le moyen de s'en servir.

(108) 간접보어나 상황보어

① Mais pour cette réunion mon esprit se divise.

Puisqu'il faut je donne aux devoirs d'un époux.

La moitié des penses qui ne sont dûs qu'à vous.

② (si ce)n'eut été que de moi, je n'en fusse pas arrivé à cette pénible extrémité.

(109) 전치사가 없는 보어.

Il ne verrait Elsa Brunner que le lendemain matin.

(110) 부정법 보어: Des conversations fréquentes ont eu lieu Ismet Pacha et le général Pellé.

Elles ont été courtoises et elles ne peuvent qu'être utiles.

B) 형용사 내지 그 同價의 가치

14) Damourette et Pichon, § 2276.

15) K. Togeby, § 1827.

(111) 부가사로서 : ……et que meshuy je ne puisse en cela requerir ny esperer, de la destinée, faveur qu'illégitime.

(112) 속사로서 : A parler comme ça, tu n'es pas drôle. Etienne, tu n'es que bête.

(113) 동격 내지 속사 : ……il y avait 40 ans qu'il ne s'étoit couché qu'ivre.

C) 부사 내지 그 同價의 가치

(114) Il ne parle que ridiculement.

(115) Tu n'avais pas qu'à me taquiner.

이상의 例文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唯一辭 que는 제한 내지 배제의 유일한 예외로 소개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나 다음과 같은 (116), (117)의 경우에는 강조적 가치를 지니 '완전히(parfaitement)'라는 의미를 갖기도 한다.

(116) Une star?…-Internationale ……Vous ne connaissez qu'elle!

(117) Mais non, c'est idiot ……je n'ai que ce nom-là dans la tête.

唯一辭로서 ne 가 생략되어 쓰이는 경우는 속어(parler vulgaire)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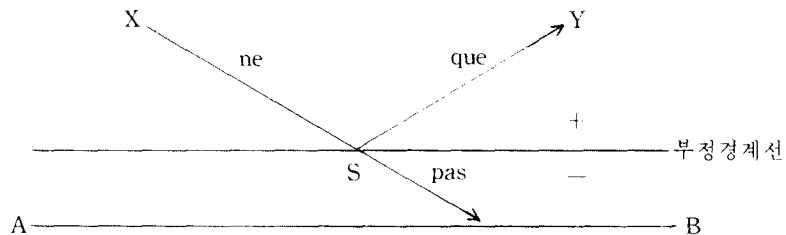
(118) C'est vrai, qu'est-ce qu'ils peuvent apprendre dans le ruisseau.

Ils peuvent apprendre que le mal.

(119) Heureusement que les uns et les autres, ils y entravent que le balpeau au milieu.

(120) J'ai qu' à regarder.

以上の 構文들을 통해서 본 유일사 que는 배제적 분위기 속에서 긍정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본다면 다음과 같은 二元張力型 모델을 얻어낼 수 있다.



<그림 4>

위의 그림은 Moignet(1981, p. 205)의 모델과 같은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서 유일사 que는 pas와는 달리 부정경제선을 넘어서지 못하고 긍정적 가치를 갖는 제2장력을 보여주고 있다.

II-5. 二重否定

앞서 다룬 세 가지 종류의 부정소 discordantiel, forclusifs, uniceptif는 다음과 같이 組合되어진다.¹⁶⁾

16) Ibid., § 1833.

| 주 어 | 부정소 | 동 사 | 부 사 | 부 사 | 과 거 분 사 부 정 법 | 목적어 | 접속사 |
|----------------------------------|-----|-------------|-------------------------|-------------------------|-------------------------------|----------------------------------|-----|
| personne rien aucun nul | ne | (a) (va) | guère jamais plus | jamais plus guère | (bouleversé) (bouleverser) | personne rien aucun nul | qu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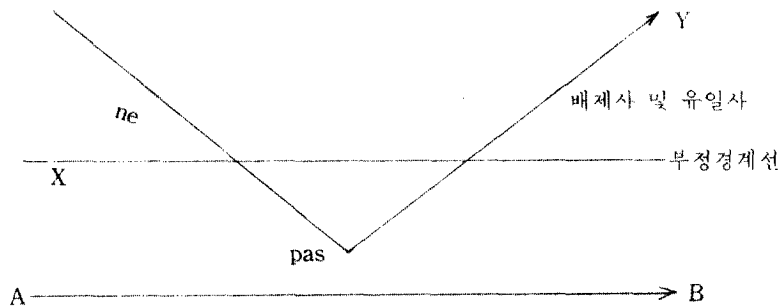
위의 表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만족시킨다.

1. ne 는 모든 부정소들과 결합한다.
2. non 은 pas, point, plus 하고만 조합된다.
3. pas 와 point 은 rien과 que와 조합되는데 그들 상호간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 의미를 갖도록 한다.
4. 다른 모든 조합의 경우 두번째의 부정사가 긍정적 가치를 갖는다.¹⁷⁾

위의 表의 組合 條件을 따르면 5개 이하의 부정소가 조합되어 부정문을 이루게 되나 실제로는 3개 정도가 조합되어진 다음과 같은 형식의 구문들 (121)~(129)이 주로 쓰이고 있다.

- (121) aucun~plus rien: Aucun d'eux ne dit plus rien.
- (122) guère plus que: Elle n'a guère plus que vous.
- (123) jamais plus que: Il n'y aurait jamais plus que des journées inutiles.
- (124) jamais plus rien: Jamais plus rien ne se rapportera à ma seule personne?
- (125) jamais rien~personne: Vous n'avez jamais rien donné de vous personne.
- (126) personne~jamais que: Ces allées où personne ne venait jamais que lui.
- (127) plus personne que: Et je n'ai plus personne que lui.
- (128) plus jamais rien: Elle ne disait plus jamais rien qui me choquât.
- (129) plus rien que: Elle n'était plus rien qu'une matière à donner……

이와같은 二重否定의 경우 의미효과는 「배제에 대한 배제」 또는 「反排除」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二元張力型 모델에 표시해 본다면 다음 그림 (5) 와 같다.



<그림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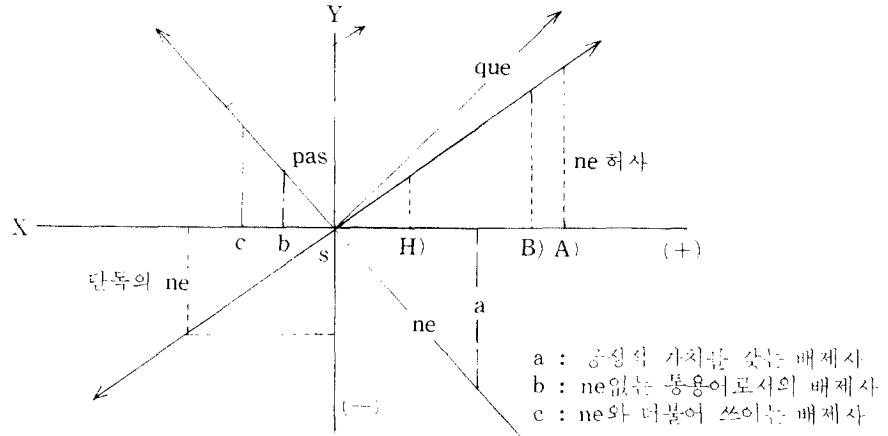
실제로 위의 예문 (129) 를 위의 그림 (5) 에 넣어 test해 보면 다음과 같다.

ne 는 부정경계선을 향하여 접근하고 있으며 plus는 pas 代身の 제2부정소의 역할을 담당하여 「ne~plus」로서 négation pleine를 다하고 있다. 그 이하 뒤따르는 부정소 「rien」은 긍정

직 가치를 지니는 「n'importe quoi」로 「que」는 「excepté」의 의미를 갖는 긍정적 효과를 지님을 알 수 있다. 그결과 「rien」과 「que」는 다시 부정경계선을 벗어나 긍정적 vector로서 작용하는 그림 (5) 를 충족시키고 있어 예문 (129)는 이중 부정문의 의미효과를 앞에서 서술한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

III. 結 論

우리는 부정소의 의미효과를 분석해 보기 위해 Damourette와 Pichon의 세분화된 심리적 연구태도보다는 좀 더 객관성을 띠고 있다고 여겨지는 Gaatone이나 Togeby의 통사적 연구를 바탕으로 부정소들의 정신적 움직임을 二元張力型 모델에 序列化 해보려고 노력한 결과 지금까지 네 가지 모델을 추출해 낼 수 있었다. 이제 이 네 가지 모델을 數學에서 쓰이는 XY좌표를 이용하여 이 모델들을 총괄적인 有機關係를 맺어 정리해보면 다음 그림 (6) 과 같다.



<그림 6>

우리는 위의 그림 (6) 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고자 했던 각 부정소들의 外延範圍를 Moignet를 中心한 정신기개론 학자들의 그것보다 총체적인 구조화를 이룩함으로써 더욱 간결하게 정리해 볼 수 있게 되었다.

ne는 단독으로 쓰일 경우 $(-X, -Y)$ 즉 제3좌표에 들어있는 바 항상 부정적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에 비해 허사로서의 ne는 (X, Y) 즉 제 1좌표에 자리잡을 수 있는

17) Ibid., § 1812에서 부정적인 단어가 긍정적 가치를 가질 경우 그 의미변화는 다음과 같다.

- ① personne→quelqu'un, quiconque, qui que ce soit n'importe qui.
- ② rien→quelque chose, quoi que ce soit n'importe quoi.
- ③ aucun, nul→quelque, quelconque.
- ④ ni→et, ou.
- ⑤ guère→jamais
- ⑥ jamais→un jour
- ⑦ plus→encore

데 이 경우 허사 ne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非同質比較級 構文인 A)에서부터 시작하여 가장 적게 나타나는 「sans que」의 구문인 H)에 이르기까지 universalité가 큰 것부터 점차 적은 順으로 X 線上에서 序列化 되어있음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다.

한편, 배제사는 제 2좌표와 제 4좌표에 자리잡았는데 긍정적 가치를 갖는 배제사 (a)의 경우 형태상으로는 부정이나 그 의미효과는 긍정이기에 (X, -Y)좌표에 나타나 있다. Langue courante에서 ne를 생략해 사용하는 배제사 (b)가 부정문을 이루어 사용되는 경우, 형태상으로는 négation pleine인 「ne~pas」에 비해 부정효과의 強度가 더 낮다고 여겨지므로 제 2좌표인 (-X, Y)의 線上에 b와 c가 나타나 있다. 유일사 que는 긍정적 가치를 갖는다고 보아 제 1좌표에 나타나 있는데 점차 universalité를 잃어가는 부정의 ne에서부터 부정경계점(S : seuil de négativité)을 接點으로 하여 이를 벗어남으로서 긍정적 의미효과를 띠어가기 시작한다.

또 한가지 비교되는 사항은 단독의 ne가 대부분의 경우 文學語에 쓰여 소극적이고 靜的인 부정효과를 갖는 반면에 pas는 일상통용어에 쓰여 적극적이고 역동적인 면을 보이기에 이들이 좌표에 다르게 설정되었다.

마지막으로 二重否定의 경우 「ne~pas」에 잇달아 다른 배제사가 옴으로서 구성되기에 두 번째부터의 배제사는 긍정적 가치를 갖게됨으로서 外的差減(subduction exotérique)되어 제 1좌표에 나타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discordantiel, forclusifs 그리고 uniceptif 등의 세 가지 부정소들의 통사적 형태를 corpus를 통해 조사해 보는 한편 이들의 의미효과를 추출하여 二元張力型 모델에 序列化해 봄으로써 과거의 정신기계론 학자들의 理論보다 더 단순하면서도 整然하게 構造化 된 부정소들의 의미효과를 비교·분석해 그 참모습을 드러나게 해 볼 수 있게 되었다.

參 考 文 獻

- Baciu, (I), La négation restrictive, Le franÇais moderne, 1978, N°2, Editions D'ARTREY, Paris.
- Barnicaud, (G) 외, Le problème de la négation dans diverses grammaires franÇaises, Langage, 1967, N°3, Larousse, Paris.
- de Cornulier, (B), Sur une règle de déplacement de négation, Le franÇais moderne, 1973, N°1, Editions D'ARTREY, Paris.
- _____, Remarques à propos de la négation anticipée, Le franÇais moderne, 1974, N°3, Edition D'ARTREY, Paris.
- de Boysson-Bardies, (B), Négation syntaxique et négation lexicale chez les jeunes enfants, Langage, 1969, N°4, Larousse, Paris.
- Damourette, Jacques 외, Des mots à la pensée, Essai de Grammaire de la langue franÇaise, Tome 1, Tome 6, Edition d'ARTREY, Paris.
- Dubois, Jean, 외, Eléments de linguistique franÇaise : syntaxe(chapitre XVIII : La négation), 1970, Larousse, Paris.
- Gaatone, (D.), Etude descriptive du système de la négation en franÇais contemporain, Le franÇais moderne, 1973, Editions d'ARTREY, Paris.
- Kilik, (A.), La caractérisation négative, Le franÇais moderne, 1971, N°2, Editions d'ARTREY, Paris.
- Moignet, Gérard, Systématique de la langue franÇaise, 1981, Klincksieck, Paris.
- _____, L'opposition <non/ne> en ancien franÇais, Travaux de linguistique et de littérature, III, 1965, Université de Strasbourg, Strasbourg.
- Muller, Claude, Analyses linguistique des relations de champ entre quantificateurs et négation, Langage, 1977, N°4, Larousse, Paris.
- Togeby, Knud, Grammaire franÇaise, Vol. IV, Akademisk Forlag, 1984, Copenhague.
- 서 정수, 국어의 부정법(否定法) 연구에 관하여, 문법연구, 제1집, 문법연구회, 1982, 光文社, 서울.